

“오월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오월이 현재에서 살아 숨쉴수 있게...”

하성흡 작가 20년만에 개인전
1월8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100호 크기 작품에 5월 현장 담아
내년엔 윤상원 열사 '일대기전' 개최



하성흡 작가

하성흡 작가(59)의 수묵담채 '1980년 5월 21일 발포' (2017) 앞에 서면 쉽게 발길을 옮기지 못한다. '그날'의 금남로가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해서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시선의 작품에는 25회 호남예술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전일빌딩, 지금은 없어진 YWCA와 분수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골목길로 흩어지는 수많은 인파, 그리고 총을 든 군인과 하늘을 맴도는 헬리콥터가 보인다. 화면 속에서 총소리와 비명, 함성이 들리고 나오는 듯하다. 무엇보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모습'의 수천명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람객을 압도한다.

하성흡 작가가 광주에서 20년만에 개인전을 열고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일대기전(一以貫之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관되게 한국만을 꿰뚫어 보며'라는 주제처럼 그가 40년 화업동안 한차례도 놓치지 않았던 그림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전시를 맞아 대표작을 엮은 '한국현대미술선 043 하성흡'과 사진으로만 남아 있던 초기작품과 유실된 작품 중 1000 여점을 모은 450쪽 분량의 전자도록도 함께 나왔다.

작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던 그는 지난해 만난 한 지인에게서 "하도 전시회 소식이 없어 그림 접은 줄 알았다"는 말을 듣고 올해 전시회를 준비했다. 올해는 전남대 미술교육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한국화로 방향을 바꾼 지 꼭 30년이 되는 해라 결산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 작가는 5·18이 나던 해 대동고 3학년이었다. 장동근처에서 살았던 그는 21일 집회를 마치고 도청으로 들어갈까, 집으로 갈까 망설이다 '집'을 택



1980년 금남로 상황을 생생히 표현한 하성흡 작가의 100호 대작 '1980년 5월 21일 발포'는 세세한 묘사로 관람객을 압도한다.

했다. "아! 나는 살아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며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라면 후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늘 생각했고, 특히 광주항쟁을 그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은 적은 없었지만 좀처럼 붓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1989년 정조대왕 '수원행도'를 보며 돌파구를 찾았다. 사진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다. 당시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한 전통기록화를 보며 방향을 잡은 그는 1993년 '박승희 장례행렬도'로 그 가능성을 타진했고, 5월 현장쪽 꼭 그려내고 싶었다.

"그 때 도망쳤던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월을 그려야한다는 부채감을 갖고 있었죠. 80년 5월로 돌아가야하는 작업은 힘들고, 괴롭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과정입니다. 당시 자료를 최대한 공부하고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하거든요. 당시의 풍물, 분위기도 놓치지 않아요 하구요. 물론 유추하고 판단하는 작가의 감각이 중요하죠. 땅 소리가 낮을 때 순간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고 오래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 냈죠. 도시와 건물 등 배경은 두 세달, 사람들은 2-3일 걸려 완성했습니다."

전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은 윤상원 열사의 모습을 담은 60점의 소품이다. 내년엔 100호 대작 10점으로 윤상원 열사 일대기를 제작하는 전초작업기도 하다. "더 이상 늦추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실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앞으로는 힘이 떨어지지 못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돌보기를 써야 작업하거든요. (웃음)"

작업실 인근 장동 사람들을 담은 인물화도 눈에 띈다. 유명한 인전담공탕집 주인장 모습도 보였다. "제 삶의 테두리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살아보니까 제가 먹고 자고 부딪치고 생활하는 동지 안에 있더군요. 새들이 동지에서 살 듯 말이죠. 물건이 필요하면 슈퍼에 가고, 차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고, 헛바퀴돌듯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전시를 위해 오랜만에 작품을 꺼내보니 거리와 공간, 사람들 모두 다 변했더군요. 떠난 이도 있고요."

해남 대흥사 감로탱에서 영감을 받은 '해남탱'도 인상적이다. '흙과 가장 가까워서' 살아온 70대 토박이의 삶을 불화의 기계적 답습 대신, '평생도' 개념으로 그린 작품 속에는 70대 토박이 부부의 고단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온 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그는 2000년부터 몇년간은 '노사모' 활동에 열심이었다. '시골의 무명화가'가 '의병운동' 하듯 활동했고 전국회장을 맡기도 했다.

"작가는 사회적 발언에서 떠날 수 없어요.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월 역시 마찬가지죠. 오월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를 알리고 '기억하는 역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풍경과 산수화도 인상적이다. 관동팔경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부터 소재영 48경을 그린 작품, 금강산을 담은 작품들이다. 북한측 초청을 받아 내금강까지 다 돌아본 그는 금강산에 올라 민족적 자긍심, 조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했다. 의연한 산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흥을 담으려 노력했다.

"저에게 화가로서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체성이 없는 게 제 정체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살다 가지"는 생각으로 작업합니다."

선문답처럼 들리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무용가 공진희 씨 영암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한국무용가 공진희(46·사진)씨가 제21회 영암 전국국악대전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 대통령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영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영암전국국악대전은 장흥가무악제가 올해부터 영암으로 옮겨 개최된 대회로 판소리, 무용, 고법, 기악 4개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경연대회다. 특히 각 분야의 1위들이 경합을 벌이는 종합결선을 통해 대통령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모두 274명이 참여했으며 공씨는 종합결선에서 심사위원 20명 중 15명으로부터 1위 점수를 받았다. 공씨는 이번 경연에서 이매방류 '승무'로 영예를 안았다.

조선대 체육대학 무용과 석사 학위를 마치고 사범대학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한 공씨는 광주시립국극단 무용부 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대 체육학과 공연예술무용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무용제에 광주대표로 출전해 두차례 은상을 수상했으며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조안무를 맡기도 했다. 또 뿌리한국무용단을 이끌고 임방울·허백련 등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국악상설무대를 장식했다.

김덕속 선생에게 이매방류 승무를 사사한 공씨는 "승무는 전통무용의 최고봉으로 한국무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꿈같은 작품이다. 진양조의 가장 느린 장단부터 가장 빠른 휘모리 장단까지 모든 장단이 어우러져 있어 가장 어려우면서도 선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했다. /전은혜 기자 ej6621@

'문화예술 공공기관 잡토크 아카데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1월 6~8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무용)은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8일까지(오후 1시) 용지관에서 2020년 '문화예술 공공기관 잡토크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잡토크 아카데미'에는 모두 9명의 중앙 및 전남권 문화예술 공공기관 인사채용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예술교육과 예술경영, 연구 분야의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문화전문대학원 출신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채용 과정과 입사 노하우 경험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관광컨벤션뷰로,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광주전남연구원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